

정력과 기력을 높인다

(마늘 · 로알제리 · 누에가루)

두리원 대표 김해용
한국자연건강연구회 이사

4) 정충수를 높인다.

젊은이들의 정충(精蟲)수가 5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다. 앞으로는 농약과 공해물질인 다이옥신(Dioxine) 등으로 점점 줄어들어 산아제한을 하지 않고서도 인구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보고까지 나오는 시대인 만큼 로알제리는 더 없이 좋은 1차 식품이다.

로알제리는 호르몬과 같은 성분을 갖고 있어서 보관력이 아주 중요하다. 생산 즉시 냉동실에 보관해야 한다. 실온에 둘 때 꿀과 로알제리의 비율은 12:1로 배합하면 50~60일은 효력이 유지된다. 영하 18도에서는 3년간 두어도 활성은 그대로 살아 있다. 오랫동안 유지시키려면 동결건조를 해야 한다. 동결건조를 하였을 때는 5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두리원에서 사용하는 로알제리는 모두 동결 건조시킨 것을 사용한다. 필자가 잘 알고 있는 C사장은 영어와 일어에도 능통하신 분이다. 총각 때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정충검사를 하게 되었다.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무정충증(無精蟲症)으로 나왔다. 일본의 쓰쿠바대학의 한 농대 교수로부터 로알제리를 복용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국내에 동이와 결혼 했지만 2남을 두었다. 이로 인해 양병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봉독연구가(蜂毒研究家)로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직접 생산한 봉독을 국내 450개 병, 의원에 공급하고 있다.

5) 늙어도 정력이 좋아야 한다.

필자가 잘 알고 있는 70대 후반의 사업가 K사장은 상처 후 60대 여성과 재혼을 했다. 부인은 성생활을 좋아하는데 자신은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좋은 처방이 없겠는가? 하고 필자를 찾아왔다. 체중이 비대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방법에 몇 가지 처방을 제시해 주면서 로알제리를 권유했다. 2개월이 지나고 나니 부인이 좋아할 정도로 좋아졌다고 했다. 여자는 60, 남자는 70이 넘으면 성(性)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있고 부터는 남자나 여자나 의식주만 해결되면 죽는 그 날까지 좋아하는 것이 성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로알제리의 10가지 효과

〈로알제리와 건강장수〉라는 저서에 의하면 로알제리의 효과를 10가지로 요약하였다.

- ① 기분이 상쾌해진다. ② 피로감이 없어지고 체력이 좋아진다.

- ③ 식욕이 증진한다. ④ 스테미너가 좋아진다.
- ⑤ 건통, 요통이 사라진다. ⑥ 수면을 취할 수 있다.
- ⑦ 변비가 개선된다. ⑧ 혈색이 좋아지고 수족 찬 것이 개선된다.
- ⑨ 얼굴의 검버섯이 없어진다. ⑩ 병후 회복이 빠르다.

4. 누에가루

우리가 가난했던 70년대는 고치수출이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가 시골에서 생활 할 때 집에서는 누에도 많이 먹었다. 봄에는 누에를 8장까지 먹었다. 1장은 누에가 2만 마리 이므로 16만 마리가 된다. 가을에도 또 먹이므로 년(年) 2회를 먹인다. 그 당시 시골에는 성인병에 속하는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심근경색증 같은 병은 없었다. 그러나 누에를 많이 먹이다보니 도시에서 당뇨에 사용하겠다고 간혹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누에를 찌서 팔아보기도 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당뇨병이 급격히 많아지자 누에에는 명주살을 얻기 위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건강식으로 판매하기 위해 먹고 있다. 누에는 고치로 판매하는 것보다 건강식으로 판매할 때가 3~4배의 높은 수익이 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민간요법으로 좋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 효과가 있으면 과학적 규명이 없을 뿐이지 입증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지금은 누에가 당뇨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효과는 있어도 부작용이 있으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가능성 식품도 될 수 없다. 가능성 식품이라고 하면, 질병에 효과가 있으면서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을 때 사용 할 수 있는 용어이다.

에프킬라 같은 모기약을 친 뒤 10일 이내에 그 방에 누에를 먹이면 거의 다 죽게 되고, 뽕밭 근처에는 농약을 1주일 이내에 살포했으면 그 뽕잎을 먹은 누에는 다 죽게 된다. 누에가 독성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저독성 실험을 할 때 누에를 사용한다. 누에에 해가 없으면 인체에도 해가 없다. 누에가 스테미너에 좋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논문은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누에가루를 먹고 당뇨도 좋아졌지만, 당뇨보다 정력이 먼저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쓸 때는 설(設)이지만, 이것이 학술적으로 밝혔을 때는 과학이다. 앞으로는 누에가루가 정력에 좋다는 논문도 나올 것으로 여긴다. 누에가루가 스테미너에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양질의 고단위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정액도 알고 보면 고단위 단백질이다. 생체식과 현미식이 건강에 좋다고 스테미너까지



줄게하는 것은 아니다. 스테미너를 줄게하는 데는 육식이 필요하다. 자연식은 성격을 온순하게 만들지만, 육식은 공격형 성질을 만든다. 그리고 강간이 많은 나리일수록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또 육식을 많이 하는 민족일수록 운동도 격렬한 운동을 좋아한다. 그 예가 복싱, 축구, 미식축구, 레슬링 등이다.

복상사(腹上死)는 자연식 하는 사람에게에는 없다. 육식을 좋아하고 심근경색증(心筋梗塞症)이 있는 사람이 젊은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을 때 간혹 일수 있다. 누에가루를 매일 먹어도 괜찮은 것은 심근경색증을 일으킬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없는 대신에 성인병 예방 및 치유력이 있는 키토산을 3% 함유하고 있다.

5. 성기능에 관여하는 아연

권장하는 영양소도 시대에 따라 달라다. 50~60년대는 하루 3끼 밥 먹기가 어렵다보니 차킨이나 쇠고기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나 먹을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때는 단백질이 부족했고, 칼로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양학 서적들은 단백질과 칼로리를 많이 강조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쇠고기도 간간히 먹을 정도로 식생활이 나아지자, 강조되는 영양소는 비타민이었다. 비타민을 먹지 않으면 곧 병이라도 날 같은 광고가 매일 신문 전체를 장식했고, 영양학 서적에도 비타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네랄 선전이 약 광고의 일부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우리 몸에는 비타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네랄이지만 미네랄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낼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몸에서 결핍현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토양의 보약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퇴비이다. 그러나 퇴비를 주지 않고(인건비 상승으로 줄 수 없음) 값싸고 사용하기 편리한 화학비료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농사를 지어도 주는 것 없이 빼앗기만 하는 농사를 한 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이 경과하자, 토양은 미량영양소의 겹핍으로 병들게 되었다. 사람은 병이 나면 병원을 찾게되고, 토양이 병들면 농약사용이 늘어난다. 90년대 60년대에 비해 농약사용량이 14배로 늘어났다. 거기서 생산한 식물은 먹은지 20년이 경과하자 세포막이 약해지고 뼈의 골세포(骨細胞)도 약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가 지금 많이지고 있는 암, 당뇨, 관절염이다. 미네랄의 연구가 비타민보다 앞섰어도 이 병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이나 철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십 가지 미네랄을 필요로 하고있다. 이 중에 한두 가지의 미네랄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분자교정의학(Orthomolar Medical)의 학설이다.

미네랄 중에서도 생식기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연(Zinc)이다. 아연이 우리 몸에 들어 있는 것은 한돈(3.7kg)의 무게도 안되는 3g이다. 그러나 이것이 탄수화물의 대사에 필요한 인슐린의 구성성분으로 작용한다. 또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체내 70여가지 효소 생산에도 관여하고있다. 아연의 결핍현상이 일어나면 성적능력이 약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진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진다. 성인이 1일 필요로 하는 양은 15mg이다.

연대별 농약의 소비량

1960년대를 100%로 기준

연대	비료 사용량(t)	%	농약사용량(t)	%
1960년	279,424	100	1,783	100
1970년	562,902	200	3,719	200
1980년	828,039	300	16,132	900
1990년	1,104,104	400	25,082	1400

6. 구구단과 재미있는 성문제

성의 전환점을 재미있게 계산한 방법이 있다. 여자는 7배수, 남자는 8배수를 가산한 방법이다. 이것이 100% 맞다고는 할수 없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임은 틀림없다.

▶여자는 7배수

- 7 × 2 = 14: 초경
- 7 × 3 = 21: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 7 × 4 = 28: 생식력이 최고조에 이른다.
- 7 × 5 = 35: 성감대를 가장 잘 느끼는 시기
- 7 × 6 = 42: 성적으로 노쇠 되는 시기
- 7 × 7 = 49: 폐경기가 되는 시기

▶남자는 8배수

- 8 × 2 = 16: 성 기능이 왕성해져 정액이 사출되고, 교접하면 임신이 가능
- 8 × 3 = 24: 성적으로 완전한 성인
- 8 × 4 = 32: 전신이 발달되어 성 기능이 최고조에 달함
- 8 × 5 = 40: 성감대가 잘 느끼는 시기
- 8 × 6 = 48: 성 기능과 신체 기능이 약해진다.
- 8 × 7 = 56: 생식능력이 떨어진다.
- 8 × 8 = 64: 생식능력이 한계점에 도달

구구단과 성 관계 계산법은 완전한 계산법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계산법이다. 2, 3, 4는 20대, 30대, 40대를 의미하고, 18의10은 날짜, 8은 횟수를 의미한다. 9×5=45에서 5는 50대, 45의4는 40일, 5는 40일에 할수 있는 횟수이다. 즉 50대는 8일에 한 번씩 할수 있는 횟수를 의미한다. 육식을 하지 않는 식물성 위주의 식생활일 때는 이 수치가 가능하지만, 육식을 겸한 식생활로 건강하다면 이 수치보다 횟수는 높다.

- 9 × 2 = 18: 20대는 10일에 8회
- 9 × 3 = 27
- 9 × 4 = 36: 40대는 30일에 6회
- 9 × 5 = 45
- 9 × 6 = 54
- 9 × 7 = 63
- 9 × 8 = 72: 80대는 70일에 2회, 한 달에 1회

